

한국관광의 1번지 · 강원도의 화장실 정비시책

한국관광의 1번지 강원도는 「99 강원 국제관광 EXPO」를 계기로 접객업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화장실을 문화와복지·환경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화장실로 개선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지별로 「테마가 있는 화장실」 만들어 특색있는 화장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 남 수

강원도의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 시책은

1999년 9 ~ 10월 속초시에서 개최된 「99 강원국제관광 EXPO」를 준비하면서 고속·국도변휴게소 및 설악산 주변의 공중화장실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한 것을 시작으로 2000 ~ 2003까지 · 4년간 공중화장실, 공공기관, 접객업소 등 다수인이 사용하는 33천개소 모두를 괘적하고 청결하며,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않는 전국최고 수준의 화장실로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관광지의 공중화장실은 국제적 수준의 편의시설은 물론, 지역의 특색과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새로운 개념의 화장실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로 만들고 있다.

강원도가 추구하는 화장실정비 목표는

기본적으로 화장실이 생활문화의 한공간으로서 휴식과 여유가 있는 「문화 화장실」이 되고, 장애인·노약자·여성·어린이 등 이용이 불편한 계층을 최대한 배려하는 「복지 화장실」과, 절전·절수등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화장실」을 만드는 것이며

강원도의 화장실정비사업은

18개 시·군별로 사회단체 및 업종별 사업자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화장실문화 수준높이기 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간부분의 화장실정비사업을 주도

문 남 수 강원도청 맑은물보전과(ytjeon92@provin.kangwon.kr)

하고 있고, 도에서는 매년 시·군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시책촉진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화장실 Best 10 선발·시상, 사진전시회, 심포지움 및 연찬회 등 올바른 화장실이용 문화정착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 관광지의 화장실은

노후되고 시설과 외관이 극히 불량한 시설은 철거하고 신축하되 주변환경을 최대한 그대로 살려서 자연친화형의 쉼터로 만들며, 개·보수가 가능한 시설은 내부시설의 첨단화로 이용자의 편의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개선하고 있다.

이제부터 소개하는 화장실들은

강원도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시책으로 신·개축 하였거나 기존시설을 보수한 화장실로서 관광지별 특성과 주변여건에 맞게 만들어진 시설들을 염선한 것들이다.

강변 유원지 (춘천시 강촌)

그림 1은 수도권 열차 관광지의 분위기를 살려서 「간이역과 열차」 모양으로 신축한 화장실이다.

- 면적 : 72m² (남 24 · 여 32 · 장애인 16)
- 철근콘크리트
- 아스팔트 쟁글

해수욕장 (강릉시 주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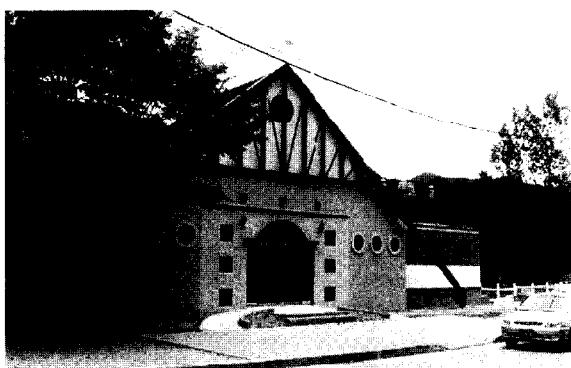
그림 2는 전면에서 바라보면 갈매기가 비상하는 모습이며, 내부는 짙은 청색으로 푸른 동해바다의 이미지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 철근 콘크리트
- 아스팔트 쟁글
- 면적 : 136.6m²(남 68.3 · 여 68.3)

숲속 관광지 (동해시 무릉계곡)

무릉도원의 이름을 딴 「무릉계곡」의 화장실은 4동 모두를 연한 황토색 벽체로 처리하여 주변의 숲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하였다(그림 3, 4).

- 1동당 32m²(남16 · 여16) × 4동
- 1일 평균이용자 : 600명



[그림 1] 강변 유원지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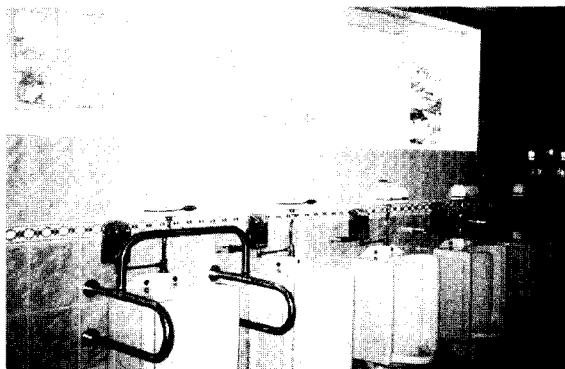
[그림 2] 주문진 해수욕장 화장실

어촌과 바닷가 (삼척시 새천년도로변)

「환선굴」등 동굴도시로 유명한 삼척시는 “2002년 세계동굴EXPO”를 준비하면서 지역의 특색을 살린



[그림 3] 무릉계곡 화장실 외관



[그림 4] 무릉계곡 화장실 내부



[그림 5] 등대와 조개(· 면적 : 34m²(남23 · 여16 · 장애인5)
· 이용객 : 200명/일)

집중기획 화장실 설비

화장실을 다수 신축하여 테마가 있는 화장실 조성시 책을 선도하고 있다.

▶ 등대와 조개(그림 5), 황금박쥐 바람개비(그림 6), 너와집, 어선(그림 7) 등

사찰 관광지 (평창군 오대산)

오대산 국립공원 내「월정사」 및 「상원사」 주차장의 화장실로 목조에 황토색 벽체와 기와지붕이 古刹과 잘 어울리는 화장실이다(그림 8, 9).

전래동화를 테마로 한 화장실 (정선군 화암동굴)

폐광된 금광과 자연동굴을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우

리나라의 “금 도깨비” 동화를 테마로 한 「금깨비·은깨비」 화장실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대리석을 내부 소재로 하였다(그림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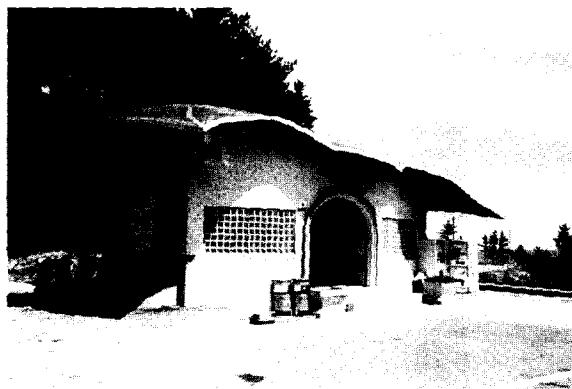
· 115.3m² × 2동(남41, 여53.3, 장애인21)

· 이용객 : 15,000명/일

담쟁이로 덮힌 화장실 (인제군 장수대)

내설악 장수대에 위치한 화장실(그림 12)로 지은지 오래된 화장실을 개수하면서 자연석으로 쌓은 벽체와 담쟁이 덩굴을 그대로 두어 주변의 단풍과 어울려 자연의 일부분인 듯 아름다운 화장실이다.

· 면적 : 32m²(남16, 여16)



[그림 6] 박쥐(· 면적 : 45.7m²(남18 · 여22 · 장애인5.7)
· 이용객 : 200명/일)



[그림 8] 월정사주차장(· 면적 : 62.64m²(남26 · 여26 · 장애인10.6) · 이용객 : 1,000명/일)



[그림 7] 어선



[그림 9] 상원사주차장 (· 면적 : 59.5m²(남26 · 여26 · 장애인7.5) · 이용객 : 600명/일)

- 자연석 조적조

숲속의 휴게실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노루목화장실)

독특한 외관 및 아름다운 조명과 송림이 잘 어울리는 「숲속의 쉼터」로 탐방객이 잠시 쉬어가기에 충분한 장소이다(그림 13).

· 규 모 : 39.26m²

(남 : 대변기2, 소변기4, 여성용3)

너와집 화장실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 화장실 전경

너와집 형태의 외관과 친환경적인 목재 및 천연석 재



[그림 10] 화암동굴 화장실 외관



[그림 11] 화암동굴 화장실 내부

료를 사용하여 수려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그림 14).

- 화장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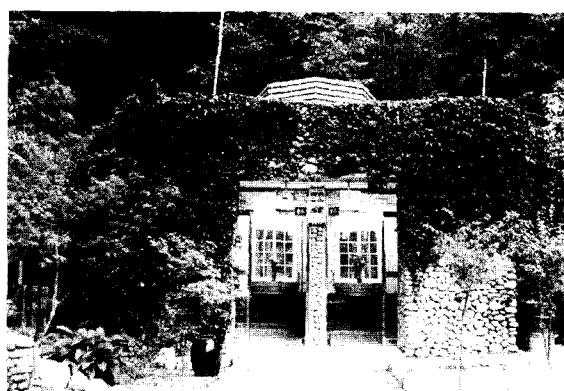
그림 15와 같이 전면의 대형 파노라마 사진과 후면 창밖의 야생화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 규 모 : 39.26m²

(남 : 대변기2, 소변기4, 여성용3)

앞으로, 강원도의 화장실문화는

금년 한·일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대한 정비는 2000~2001년도에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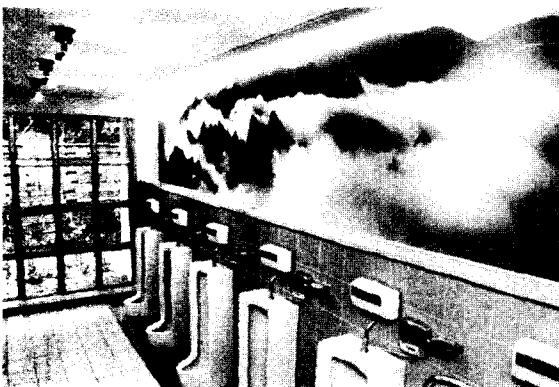
[그림 12] 장수대 화장실



[그림 13] 노루목 화장실



[그림 14] 너와집 형태의 화장실 전경



[그림 15] 너와집 형태의 화장실 내부

금년 4월까지 모든 시설을 개선완료 하고, 기타 소규모 업소전용 화장실은 내년말까지 전부 도에서 정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며, 지금까지 획일적이고 과다한 치장 등 그동안의 시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화장실문화를 앞서 이끌어 가는 선진도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과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화장실 이용문화” 교육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생들이 화장실청소 봉사활동에 참여 하도록 하는 등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시책 과「화장실문화개선」사업이 지속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화장실의 관리는

개선과 정비가 완료된 화장실들이 계속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하며, 편리하고 아름답게 유지·관리 되도록 공중 및 개방화장실 책임담당제, 공중화장실 전문위탁관리 시스템구축, 민간단체 참여 화장실 정비의 날 운영 등 완벽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금년부터는 산간, 계곡, 하천변에 설치되어 계절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청결관리가 미흡한 이동식화장실에 대하여 중수도 시스템, 자연발효식 등 관리가 용이하고, 단열·환기시설이 완벽한 시설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